

Hitachi, Matsushita와 PDP 제휴

연간 10만대 이상 조달 대형 TV에 탑재 ... 코스트 경쟁력 향상 기대

일본 Hitachi가 Matsushita Denki로부터 PDP를 대량 조달하기로 하는 등 박형 TV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제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Hitachi는 Matsushita에서 PDP를 연간 10만대 이상을 조달하고 구동회로를 내장한 대형 TV에 탑재할 예정이다. 또 체코와 멕시코에서는 Matsushita의 주문에 따라 박형 TV를 조립생산하게 된다.

일본의 PDP 사업은 Pioneer가 생산에서 철수함에 따라 Matsushita로 집약되고 있는 가운데 Hitachi와 Matsushita 양사는 제휴를 통해 한국 생산기업 등에 대한 코스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itachi는 2008년 PDP TV 생산을 90만대 계획하고 있다.

PDP의 대부분을 Hitachi Plasma Display에서 계속 양산하지만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40-50인치형은 외부에서 조달함으로써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박형 TV 사업의 수익 개선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tsushita는 2009년 5월 가동을 목표로 2000억엔을 들여 Hyogo Amagasaki에 PDP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8>